절대평화의 삶

(눅19:28-48)

38.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43.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절대평화의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절대평화의 삶'
절대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절대로 고치지 말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외 없는 법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절대라는 말의 사용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하게 됩니다마는, 특별히 평화가, 절대적인 평화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절대적인 평화의 삶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런데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평화의 삶을 사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 38절에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환호의 찬송소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봅니다, 절대평화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많이 들어본 말씀인 듯하면서도 좀 어색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 평화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는 말은 맞는데, 순서가 바뀌어 뒤로 와 있지만 '하늘에는 평화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좀 어색하고 이상하다 이겁니다.

하늘에는 평화다!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하늘에 평화지, 맞지, 뭐?
아닙니다!
하늘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평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평화라는 단어가 생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라는 말은 톨스토이의 소설제목처럼 '전쟁과 평화' 할 때 가능한 얘기에요.
분쟁이 있어서 평화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이고, 갈등이 있기에 평화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치, 'Paradise'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낙원'입니다.
이 Paradise라는, 낙원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페르시아의 대상들이 사막을 횡단할 때에 사막의 모래바람과 싸우면서 생긴 단어가 'Paradise' 낙원입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동안에만 사람은 낙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낙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낙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낙원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낙원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사막에 있기 때문에 낙원이란 단어를 아는 거예요.
하늘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적용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늘에는 평화라고 얘기합니까?
이 잘못된 사용이 왜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잘못된 찬송을 주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 하면, 이제 진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이 땅에서 드러나게 될 선민들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왕이 다스릴 왕국의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제자들과 군중들의 환호를 허락하신 것은, 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군중들의 생각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왕국의 형태나 실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평화라는 말이 적용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늘에는 평화라는 얘기를 합니까?
이 땅에는 전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왕이 등극하시고,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타날 일은 이 땅에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를 향한 전쟁,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승리가 보장 되었습니까?
선민이기 때문에, 하늘과 자기들 사이에 평화가 주어져 있다고 믿은 겁니다.
하늘과 우리들 사이에는 평화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일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땅에서 그 동안 사람들이 해 왔던 분쟁과 갈등

과 전쟁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써 통치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 천사들이 정확하게 노래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평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평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늘에 무슨 분쟁이 있고 하늘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등과 분쟁과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평화라는 게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날마다 지구 곳곳에 있는 이 땅 위의 현실 속에서 평화를 누릴 때 평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절대적인 평화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이 평화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사고, 염려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의미가 있는 평화라는 겁니다.
하늘에는 평화라는 말이 없어요, 적용될 수도 없어요.
하늘은 애초에 영~원한, 영원한 평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화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선민들의 생각이 인제 왕이 오셨으니까, 다른 민족과 민족이 싸워서 이기고 지고 하듯이, 그러한 전쟁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날, 적~어도 오늘날, 내가 하늘에서 이렇게 와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순간만이라도, 적어도 이 순간에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름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런데 너희

에게 완전히 평화의 길, 평화에 관한 일들이 숨겨져서 아예 보이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엉뚱한 노래를 불러대지.'
하늘에는 평화가 있다 그러고, 이 땅에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될 거라고 그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갖고 오면, 이 경쟁을 통해서 분쟁과 갈등이 우리의 승리로 귀결되는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 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완전히 평화의 삶이 네 눈에 가려져서 보이질 않고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평화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 뒤에 보면 성전정화를 하시는 말씀이 아주 단순화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아주 단순화시켜버려요.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가 그날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나와서 베다니에서 머물고 계시고, 하루 지나서 다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그냥 오늘은 이어서 써버렸습니다.
같이 생각하라 이거에요.
예루살렘의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었는데, 성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평화의 길을 제시하신 것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제사가 바로 평화의 삶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신 거였습니다.
어떻게 평화의 길로 접어듭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드리던, 송아지를 드리던, 비둘기를 드리던, 심지어는 곡식을 갈아드리던, 그 모든 제사는 나와 identify 시킵니다. 나와 동일시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은 애바를 갈 때는 다 갈려 없어지는 것이고, 양을 태워 죽일 때는 내가 타 죽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전쟁하고, 경쟁하고, 갈등을 겪고, 분쟁을 일으키며 내 것을 확보하려 그러고 내 것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았던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죽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까지는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확장 시키고, 내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 몸을 중심으로 한 그 내 것을 그렇게 보존하기 위해 살았던 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겠다고

마음을 먹음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마음이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안으로 뛰어 들어갈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재산을 놓고, 내 밭을 놓고,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강화하겠다고, 내가 확장하겠다고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떼어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는,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번 닫으면 열자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똑같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에 있어서 내 일이 어떻게 되라 하면 되는 거고, 되지 말라 하면 되지 않는 것이지, 누가 가로막고 그 일을 방해할 자도 없고 싸울 자도 없다는 얘기에요.
누가 하나님을 맞서 싸웁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맞서 싸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과 싸울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울 자가 있다는 것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러나 기독교는 이원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또 하나의 악의 세력이 있다, 이런 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을 마귀가 대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 싸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을 지키지 못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 것을 확장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주님이 나귀타고 입성하셔서 왕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내 옆에서 서로 경쟁하느라고, 전쟁하느라고, 분쟁하고 갈등하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안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절대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 절대평화를?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를 완전히 충족하게 따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뭐냐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둘러싸고 있는 전쟁의 상황입니

다.
이 전쟁의 상황에서, 제사의 정신을 그대~로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에 대해서 시야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양이 죽어서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죽은 거처럼 죽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다윗을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에 배부를 수 있고, 마음에 만족할 수 있고, 마음에 행복과 기쁠 수 있는 모든 분위기와 여건을 마음에 다~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절대평화가 전쟁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평화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이 경쟁을 통해서 확장되어야 됩니까?
우리 자식이 경쟁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됩니까?
모든 게 싸움이고, 모든 게 경쟁이고, 모든 게 분쟁이고, 모든 게 갈등이에요.
또 나 자신만으로도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내 인생을 확장시키려고 하거나, 성취하려 하거나 이게 다 전쟁의 길입니다.
평화의 길을 못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는, 왕이신 주님께서 열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이제 내 마음에 갈등도 분쟁도 염려도 걱정도 없어요.
내 마음은 행복한 하늘나라의 분위기 속에 감싸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거기에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없어라 하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집에 TV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조그마한 콤팩트 오디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스피커를 TV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TV 안에 내장된 스피커보다 훨씬 스피커의 성능이 좋아요.

근데 아이가 뭘 어떻게 했는지, 대조영인가 뭐 이걸 보는데 선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 기계 조작이 잘못됐는지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역사극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스피커가 빵빵 하면은 얼마나 요란합니까?

함성에 막 죽어가는 비명소리에, 엄청나잖아요?

근데 TV 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불화살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는데, 조용~ 합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스피커로 소리가 나온다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 아이는 또 그런 거만 좋아해요. 대조영 그런 거만 좋아합니다.

조용~한 거예요.

TV 안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집사람하고 편안~하게 대화합니다.

그 전쟁의 분위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무 대화도 못하고 억지로 같이 봐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말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니까.

이런 거지요.

지금 눈앞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원수들이 둘러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그 원수들이 둘러치고 있는 상황이 감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평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지금 사업이 난리가 났습니다, 망한다 흥한다 하면서.

근데 십자가에서, 죽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주님과 함께 죽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래서 부활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내 사업의 현장은 TV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처럼 진행이 되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따라서, 마치 작가가 드라마를 진행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절대평화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 죽으심을 호흡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절대평화 속에 들어가 있고, 이 세상의 삶은 사람들의 전쟁과 경쟁과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 갈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엔 갈등이 없습니다, 거기엔 분쟁이 없습니다, 거기엔 염려가 없습니다, 거기엔 걱정이 없습니다.
이 길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왕으로서.
이러한 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절대평화가 지배하는 그런 왕국.
여러분, 이 길이 어렵습니까? 이 길이 뭐가 어려워요?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을 너에게 맡기리라!'
므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작은 일입니다.
가장~ 작은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절대평화의 삶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그 어떤 원리도 원칙도 세상엔 없다 하지만, 주님이 나귀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길만은, 절대평화를 보장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절대평화의 삶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